‘활짝’ 핀 인권 이주 노동자 명암 ‘짐짝’ 된 인권

장성·무안서도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확산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현장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나눠주는 사업이 시작<광주일보 2024년 11월 27일 7면>된 데 이어 장성, 무안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2일 장성군 남면 딸기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한글 이름 명찰’을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와 협업해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이 부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고용주가 ‘야’, ‘어이’ 등 비인격적 표현을 사용하는 실태를 바꾸고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성군은 지역 내 282명의 계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만든 한국어 개인 명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군도 라오스에서 온 계절근로자 386명, 필리핀에서 온 계절근로자 41명에게 입국과 동시에 농가 인계전 자신의 이름이 뒤에 적힌 조끼<사진>를 제공했다. 이들은 양파, 마늘, 양배추, 쪽파, 고구마 등의 농작물 재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옷이 농민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니욤(여·40) 씨는 “작년에는 ‘야!’ ‘야!’라고 불렀는데, 올해는 이름을 불러주는 한국 사람이 많다”며 “열심히 입고 다닌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나라 출신 깐타나(여·27)씨도 “등에 적힌 내 이름을 불러주면 당연히 일하면서도 기분이 더 좋다”며 “이제는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산업현장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도 담양, 광양, 해남 등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총 300여명이 자신의 이름과 국가가 새겨진 안전모를 받았다.

지난 4월 6일에는 담양군에서 40명, 지난달 27일에는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100명, 같은달 29일에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 30명이 안전모를 받았고, 광양에서도 지난 6일 70명에게 안전모가 전달됐다.

민간업체인 영암 내 미주산업도 6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나눠주며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이 시작된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운동이 확산하는 건 긍정적인 변화”라며 “오는 9월까지 안전모 지급과 이름 불러주기 활동을 이어가 10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나주 벽돌공장서 스리랑카인 지게차에 벽돌과 묶여 괴롭힘 당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나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다 벽돌 더미에 함께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31·사진)씨는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에게 벽돌 더미와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사이에 퍼날라지면서 인권네트워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노동자들도 담겼다. 이중 한 남성은 허공에 매달린 A씨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A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상황을 파악한 뒤 24일 오전 11시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힘 영상을 공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A씨는 스리랑카 공동체가 있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단체는 “해당 공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폭력, 인권탄압의 사례가 종합적으로 망라된 사건”이라며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장 큰 피해자로, 지역 사회에서 보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다 정부,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감독·관리

정부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 600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관리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연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선정,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다.

전담 감독관들은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에서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추락)·소화 설비와 가연물 철저히 관리(화재·폭발) 등으로,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동부는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을 2인 1조 점검반으로 편성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감독을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전역 폭염특보…더 뜨거워진다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더 올라 무더위가 심해질 전망이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덥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7개 시·군(구례·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목포, 진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외 광주·전남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를 보이겠고,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로 한낮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23일 하루 최고 체감온도는 곡성 석곡 36.2도, 담양 봉산 35.3도, 곡성 35.3도, 무안 해제·구례·고흥 35.1도, 장성 35도, 광양읍·완도·강진 성전 34.9도, 광주 33.8도 등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올라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당분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맥류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맥류 정부 보급종 267 t을 오는 9월 12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공급한다.

대상 품종은 보리 4품종 266 t(흰찰쌀 189 t, 새쌀 49 t, 재안찰쌀 13 t, 누리찰쌀 15 t), 호밀 1품종(곡우) 1 t이다. 보리는 소독·미소독 종자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22일까지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후 9월 12일까지는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농업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침수 폐기물 산더미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23일 폭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해 임시 적환장에 쌓아 놓았다. /나명주 기자 mjna@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